

# 치유관광객의 여가활동 특성, 스트레스, 삶의 질의 관계\*

-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 -

김경희\*\* · 민재한<sup>b</sup>

<sup>a</sup>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sup>b</sup>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박사후연구원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생명로 166)

## The Relationships between Leisure Activity Characteristics,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Healing Tourists

- The Moderating Effect of Involvement on Rural Healing Tourism -

Kyung-Hee Kim<sup>a</sup> · Jae Han Min<sup>b</sup>

<sup>a</sup>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sup>b</sup>Post-Doc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Korea

### Abstract

Leisure activity characteristics are related to an individual's stress management as well as quality of life.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y characteristics,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healing tourists, and analyzed the moderating effect of involvement on rural healing touris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658 cases who experienced rural healing tourism.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activities, the conflict between work and leisure had a positive (+) effect on stress, and that stress had a nega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leisure activities,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quality of life, involvement on rural healing tourism was foun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for work-life balance and leisure, suggesting that daily recovery through rural healing tourism has a positive effect on personal stress management as well as quality of life.

**Key words:** leisure activity, stress, quality of life, rural healing tourism, involvement, moderating effect

### 1. 서론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국민 삶의 만족도와 행복수준은 낮은 편이며, 국민 삶의 걱정거리 중 '건강과 의료'(57.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건강에 대한 걱정과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까지 더해져 국민의

건강한 삶은 위협받고 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가 높은 경우 삶의 질 만족도도 높아(문화체육관광부, 2018), 삶의 균형을 찾고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여가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바쁜 일상에서도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관여도가 높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쉬는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는 치유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여가활동은 스트레스로부터 개인의 주의를 다른 곳을 돌리도

주요어: 여가활동, 스트레스, 삶의 질,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 조절효과

\*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PJ01560901)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교신저자(김경희) 전화: 063-238-2630, e-mail: khkim08@korea.kr

록 함으로써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웰빙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요인을 강화하거나 부정적인 요인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Iwasaki, & Mannell, 2000). Haines et al.(2007)은 행복과 건강한 생활 방식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Mannell, & Kleiber(1997)은 여가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도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가활동은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의 여가활동 특성은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 뿐만 아니라 여가와 관련한 일과 여가의 조화(또는 충돌), 여가참여에 대한 사회적 지지 등의 환경과 여건까지 포함하여 설명될 수 있다(Lin, Huang, Yang, & Chiang, 2014). 현대인들은 일과 삶이 조화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는 개인의 심신의 건강은 물론 삶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관광에서 관여도는 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대부분의 관광상품은 서비스의 형태로 구매, 소비, 평가되기 때문에 무형이며,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지고, 분리 불가능하며, 상하기 쉽다(Zeithaml, Parasuraman, & Berry, 1990). 관광객은 자신이 살고 있는 다른 곳에서 대부분의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한다. 따라서 관광객의 구매과정과 관여도는 내구재의 과정과 다를 수 있다(Sirakaya, McLellan, & Uysal, 1996). 또한 다른 제품에 대한 소비보다 관광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의사결정은 훨씬 오래걸린다는 특징이 있다(Gursoy, 2001). 농촌 치유관광은 일상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치유적 요소를 가진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의 일상회복, 건강 증진 등을 추구하는 형태의 관광이다(농촌진흥청, 2020). 농촌 치유관광의 경우 건강에 대한 추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광서비스에 대한 구매에 비해서 더욱 개인적 특성이 많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농촌 치유관광객의 시장세분화, 치유관광객 의사결정과정 등 치유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고(김경희, 황대용, & 이혜영, 2021), 여가와 관련해서는 여가활동 특성, 또는 여가활동 특성이 스트레스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이루어졌으나(신규리, 박정열, & 손영미, 2018; 이갑숙, & 임왕규, 2012; Lin et al., 2014), 농촌 치유관광객의 여가활동 특성, 스트레스,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가 이러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에 주목하여 치유관광객의 여가활동 특성과 스트레스, 삶의 질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구명하여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유관광객의 여가활동 특성, 스트레스,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의 여가활동 특성이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관여도의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치유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과 행동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민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촌 치유관광 확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여가활동 특성

여기는 그 의미가 다학제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는데(오상훈, 임화순, & 고미영, 2006), 이러한 여가에 대한 견해는 시간, 활동, 상태, 제도적 관점에서 분류하여 논의되고 있다(여호근, & 김대환, 2005). 일반적으로 여기는 시간적, 활동적 관점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시간적 정의로써 여기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노동시간, 수면, 식사 등 필수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유시간으로 보며 활동적 관점에서 여기는 자유시간 중에 행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송영숙, 2013). Dumazedier(1962)는 여가를 개인의 직장, 사회, 가정으로부터 벗어난 휴양, 기분전환 또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하는 활동으로, Neulinger(1974)는 일, 수면과 기타 활동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있는 시간으로 정의하여 일종의 활동으로 간주하였다. 이처럼 여기는 휴식이나 자기실현의 기능을 통해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김영숙, 2002).

관광분야에서 여가활동의 특성은 일·여가 충돌, 여가 참여, 그리고 사회적 지지로 구분되기도 하였다(Lin, Huang, Yang, & Chiang, 2014). 일·여가 충돌(work-leisure conflict)은 일과 여가라는 생활영역에서의 두 역할이 다양한 이유로 양립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역할 간 충돌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Zhao, & Rashild, 2010), 특히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일과 여가의 조화가 어렵게 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Behar-Zusman, Chavez, & Gattamorta, 2020). Ragheb &

Griffith(1982)는 여가참여를 개인의 여가활동 유형이나 참여빈도, 또는 어떻게 개인이 24시간동안 필요하거나 의무적인 시간을 외의 여가시간에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여가참여의 유형으로는 자연의 편안함과 더불어 건강을 추구하는 캠핑, 낚시, 하이킹 등의 야외활동을 포함하여 도전을 동반하는 조깅, 댄스 등의 스포츠 활동, 즉각적인 회열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문화활동, 사회적 활동, 취미활동 등이 있다(심상신, 2006).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는 여가활동의 주관적 및 심리적 측면으로 시간적·활동적 관점이 아닌 참여하는 사람들의 심리상태에서 찾는 것으로 여가활동을 통해 대인관계가 가치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측면이다(이갑숙, & 임왕규, 2012). 여가활동 참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사회적지지를 형성하고, 이러한 사회적지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고양시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이문숙, & Langsner, 2010).

## 2.2. 여가활동 특성과 스트레스, 삶의 질의 관계

여가활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완화, 긍정적인 감정 제공, 부정적인 감정과 생물학적 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이점을 제공하며(Chang, 2006), 최근 레저연구자들은 여가활동이 건강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Dustin, Bricker, & Schwab, 2009).

여가활동 특성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박정열, & 손영미(2018)은 서울거주 남녀 직장인 대상으로 일·여가 충돌은 직장인의 직무스트레스 증가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문숙, & Langsner(2010)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가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여 공변량구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장내 여가참여는 직무스트레스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Kang(2017)의 연구에서는 태권도 참여 대학생들의 여가만족이 스트레스 이후에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기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리, Lee, Wu, & Lin(2012)은 청소년의 여가참여, 여가혜택, 스트레스 대처방법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가참여는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유의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한상철(1998)은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이들의 사회적 과정을 돕고 공동체 의식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 및 심리적 안정감과 인간관계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또한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는 스트레스 관련 성장과 심리적 복지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특성과 삶의 질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Rice, Frone, & McFarlin(1992)는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하는 미국직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경로분석한 결과 일·여가 충돌은 전반적인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 Wong, & Ho(2013)는 호텔/리조트, 관광 명소, 항공업계에서 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여가 충돌은 삶의 질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급여제도에 관한 만족도가 일·여가 충돌과 삶의 질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현욱, & 이민석(2019)은 여가동아리 참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를 통한 여가만족, 스트레스 관련 성장 및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가만족은 스트레스 관련 성장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스트레스 관련 성장은 삶의 질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스트레스 관련 성장은 여가만족과 삶의 질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임영삼, 김재현, & 이상덕(2013)은 60세 이상 노인의 스포츠 여가활동이 다양한 스트레스원을 해소시켜주며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방신웅(2015)은 대학의 테니스 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여가와 삶의 질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지한 여가수준에 따라 주관적 삶의 질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Lee, Kang, & Lee(2017)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참여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참여를 통한 만족이 삶의 질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umar, Bhat, & Ryali(2018)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가활동과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Leung, & Lee(2005)는 인터넷 활동, 뉴미디어 이용, 여가활동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원, 여가활동이 인식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및 정보적 사회적지지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손지영(2017)은 여가스포츠 참여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가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희엽, 이철원, & 이민석(2017)은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60대 이상 노인복지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성장이 노인의 행복감을 촉진하고 궁극적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 상황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하였다. 송영숙(2012)과 Leodoro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삶의 질은 대인관계와

생활스트레스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김송이(2020)는 성인을 대상으로 COVID-19 유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남자가 여자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지, & 지정훈(2019)은 뷰티서비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대인관계 및 가정관련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가활동 특성은 스트레스 완화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여가활동 특성,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여가활동 특성은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일과 여가의 충돌은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여가 참여는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여가활동 특성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일과 여가의 충돌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여가 참여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

관광은 일상생활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을 제공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며 행복감을 제공한다(백림정, & 한진수, 2017). 농촌은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매력적인 장소로써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과 문화가 있고 산림, 숲 등 자연기반의 환경을 가진 자원으로 직장생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노동으로 형성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치유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김경희, & 민재한, 2021; 전재균, 2007). 특히 COVID-19으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이 제약받는 요즘 농촌에서 심신의 일상 회복과 건강증진 등을 추구하는 형태의 치유관광(농촌진흥청, 2020) 스트레스 해소 및 정신적·신체적 증세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행복감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박

정아, & 김병국, 2017; 백림정, & 한진수, 2017).

관여도는 특별한 상황에서 제공되는 사물 및 활동에 대한 태도이며, 개인이나 개인의 자아구조에 대한 관심 및 흥미로(Lee, & Lee, 2003), 외부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상호작용을 통해 단시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태도라고도 정의된다(Wiley et al., 2000). 관여도의 개념은 여가와 관광분야의 연구에서 활발히 적용되어 관광객의 만족도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유의한 영향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여가나 관광활동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삶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의미가 어느정도 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인식된다(류인평, 정충화, & 이정섭, 2018; Prayag, & Ryan, 2012; Wiley et al., 2000). 관광객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여행목적 등은 관여도 영향요인에 많이 적용되는 변인이며(유영심, 2017), 심리적인 변수로는 여행 동기와 관광경험 등이 포함된다(박정익, & 최재우, 2018). 또한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관여도가 낮은 사람보다 정보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신중히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이혜린, 2002). 이처럼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는 치유관광객들의 행동 경향이나 의사결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그들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전반적인 삶에서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여도는 특정한 대상이나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광분야에서 여행의 의사결정의 동기요인, 만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 또는 조절변수로 연구한 사례들이 진행되어왔다(이광욱, 2010; 유세란, 2019; 이태희, 양제연, & 박연옥, 2014; Prebensen, et al., 2013). 이태희, 양제연, & 박연옥(2014)은 전문힐링센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힐링체험욕구와 트랜스포머 행동의도에 대한 관계 연구에서 관여도가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힐링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전에 사용자의 기본욕구를 파악하여 홍보하는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유세란(2019)은 농촌관광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요소, 체험 가치지각, 만족 및 행동의도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체험요소와 만족 사이에서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농촌관광객들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광욱(2010)은 골프이벤트 관광객을 대상으로 골프관여도가 방문동기와 자아형성 몰입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정(+)의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치유관광객 태도를 설명하는 중요변수인 관여도를 이용하여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4: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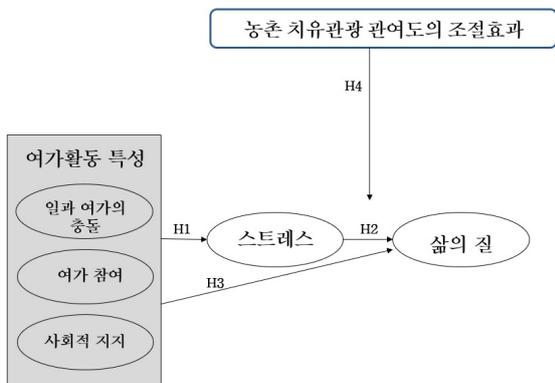
#### 3.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치유관광객의 여가활동 특성, 스트레스,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서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3.2. 측정항목

본 연구의 측정항목은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 특성, 스트레스, 삶의 질로 구성되어 있다. 여가활동 특성은 선행연구(Lin et al., 2014)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일과 여가의 충돌, 여가 참여, 사회적 지지로 구성된 1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스트레스는 선행연구(Fran, & Zyznas, 1988)를 참고로 일상스트레스와 관련된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삶의 질은 선행연구(Luo, Lanlung, Kim, Tang, & Song, 2018)를 참고로 3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관여도는 선행연구(Yang, Paek, Kim, & Lee, 2015)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4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도출된 여가활동 특성, 스트레스, 삶의 질 문항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이용하여



<그림 1> 연구모형

측정하였다. 구성된 항목들은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통해 의미가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을 수정·보완하였다.

#### 3.3.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에 구축된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할당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성인남녀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1년 8월 기준)를 기준으로 하여 성, 지역, 연령을 고려한 제곱근비례배분 방법을 이용하였다.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패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3,000명을 조사하여 그 중 최근 5년 이내 농촌 치유관광 경험이 있는 65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문항 앞에 농촌 치유관광의 개념을 제시하고 관련된 이미지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조사는 2021년 8월에 이루어졌으며, 조사에 앞서 문항의 이해도와 표현상의 오류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5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을 수정·보완하였다.

#### 3.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26.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빈도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2단계 접근방법의 첫 번째 단계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구성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하였다. 집중타당성은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평가되었다(Fornell, & Larcker, 1981). 첫째는 각 항목의 요인부하 값은 0.7이상이어야 한다. 둘째는 신뢰도는 0.7이상이어야 한다. 셋째는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은 0.5 이상이어야 한다. 판별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구성요인 사이의 상관관계 제곱값과 AVE 값을 비교하였다. AVE 값이 잠재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제곱값보다 클 경우 판별타당도가 유의한 것으로 평가한다(Fornell, & Larcker, 1981).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분석을 통해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구성개념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연구모형의 가설들을 검증한 후 마지막으로, 조절효과분석(moderation effect analysis)을 실시하여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 4. 분석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343명(52.1%)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60대 이상 139명(21.1%), 20대 136명(20.7), 50대 102명(15.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재학/졸업이 348명(52.9%)으로 가장 높았으며 결혼여부는 기혼자가 335명(50.9%)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 종사자가 165명(25.1%)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생이 143명(21.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600만원 이상이 205명(31.2%), 200~400만원 미만 193명(29.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4.2. 구성 개념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요인구조와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표 2>와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 (CMIN)=217.085, df=94, p<.001, CMIN/df=2.309, NFI=.965, NNFI=.974, CFI=.980, RMSEA=.045로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적재값은 .670~.889 ( $\geq .5$ ), 평균분산추출값은 .508~.741으로 기준치( $\geq .5$ )를 상회하여 집중타당성은 확보되었고,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는 .856~.906( $\geq .7$ )으로 기준치를 상회하여 구성개념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이창기, 2019).

본 연구에서는 판별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가장 엄격한 방법인 AVE(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과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 제곱값을 비교하는 방법은 여가활동 특성 중 여가참여와 사회적지지 간의 관계에서 여가참여의 AVE가 0.508로 상관관계의 제곱값 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잠재변수들 간 제약모델과 비제약모델을 이용한  $\chi^2$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충족함을 알 수 있다(이창기, 2019).

#### 4.3. 구조모형 분석 및 가설검증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모형 분석결과 적합도는  $\chi^2$ (CMIN)=151.985, df=45, p<.001, CMIN/df=1.670, NFI=.975, NNFI=.987, CFI=.990, GFI=.972, AGFI=.958, RMSEA=.03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기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배병렬, 2014; 이창기, 2019). 연구가설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결과는 <표 4>에서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N=658)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별	남성	343(52.1)	직업	관리자	49(7.4)
	여성	315(47.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9(12.0)
연령	15~19세	86(13.1)	사무 종사자	165(25.1)	
	20~29세	136(20.7)	서비스 종사자	51(7.8)	
	30~39세	97(14.7)	판매 종사자	15(2.3)	
	40~49세	98(14.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9(1.4)	
	50~59세	102(15.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0(1.5)	
	60대 이상	139(21.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3(2.0)	
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159(24.2)	단순노무 종사자	23(3.5)	
	전문대 재학/졸업	68(10.3)	군인	5(0.8)	
	대학교 재학/졸업	348(52.9)	전업주부	61(9.3)	
	대학원 재학/졸업	83(12.6)	학생	143(21.7)	
결혼 여부	미혼	292(44.4)	기타	35(5.3)	
	기혼	335(50.9)	200만원 미만	79(12.0)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타	31(4.7)	200~400 만원미만	193(29.3)
		400~600만원미만	181(27.5)	600만원 이상	205(31.2)

보는 바와 같다. 여가활동 특성 중 일과 여가의 충돌이 스트레스에 정(+)의 영향( $\beta=.672, t=16.224, p<.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1은 채택되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일과 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의 영향( $\beta=-.306, t=-5.275, p<.001$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이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가활동 특성 중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정(+)의 영향( $\beta=.555, t=7.290, p<.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3-3은 채

택되었다. 이는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직장과 가정 등 주변에서 지지받는 환경과 분위기가 마련될 때 삶의 질이 향상됨을 의미하고 있다.

#### 4.4. 조절효과 검증

조절변수인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를 기준으로 고관여집단( $n=396$ )과 저관여집단( $n=262$ )으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효과의 검증은 두 집단의 경로에 제약이 가하지 않은 자유모델인 비제약모델(unconstrained model)을 추정한 후, 경

〈표 2〉 구성개념내 측정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

개념	항목	요인 적재값	C.R.	신뢰도 (a)
일과 여가의 충돌	나는 일 때문에 여가활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	.843	27.813	.901
	나는 일 때문에 여가활동에 참여할 에너지가 없다.	.871	29.196	
	나는 일 때문에 여가활동에 참여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889	-	
여가 참여	나는 문화활동을 많이 한다.	.670	15.078	.755
	나는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한다.	.713	15.851	
	나는 취미활동을 많이 한다.	.761	-	
사회적 지지	나는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주변 사람들로 부터 지지받는 느낌을 받는다.	.799	21.413	.880
	나는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주변사람들로 부터 존중을 받는다.	.850	22.966	
	나는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주변 사람들은 종종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795	21.280	
	내가 여가활동에 참여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779	-	
일상 스트레스	지난 한 달 동안, 살아가는데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다.	.810	-	.882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생활 신념에 따라 살려고 애쓰다가 좌절을 느낀 적이 있다.	.881	24.953	
	지난 한 달 동안,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느낀 적이 있다.	.847	24.042	
삶의 질	나는 대체로 나의 삶이 행복하다.	.838	-	.868
	기쁨이 있지만, 대체로 나는 나의 삶을 좋게 느낀다.	.863	24.239	
	나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의 영위한다.	.788	22.209	

$\chi^2$ (CMIN)=217.085, df=94, p<.001, CMIN/df=2.309, NFI=.965, NNFI=.974, CFI=.980, RMSEA=.045

〈표 3〉 상관관계 행렬 및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구성개념	일과 여가의 충돌	여가참여	사회적 지지	일상 스트레스	삶의 질
일과 여가의 충돌	1				
여가참여	.191 (.036)	1			
사회적 지지	.190 (.036)	.747* (.558)	1		
일상 스트레스	.651 (.423)	.147 (.022)	.113 (.013)	1	
삶의 질	-.161 (-.026)	.375 (.141)	.519 (.269)	-.287 (-.082)	1
CR	.879	.755	.906	.856	.895
AVE	.707	.508	.707	.666	.741

주: 괄호 안은 상관관계 제곱값. \*가장 높은 상관관계.

〈표 4〉 구조모형 분석 및 가설검증 결과

가설	가설경로	표준화 계수	C.R.	채택 여부
<b>H1 여가활동 특성 → 스트레스</b>				
H1-1	일과 여가의 충돌 → 스트레스	.672	16.224***	채택
H1-2	여가 참여 → 스트레스	.074	1.036	기각
H1-3	사회적 지지 → 스트레스	-.072	-1.058	기각
<b>H2 스트레스 → 삶의 질</b>				
		-.306	-5.275***	채택
<b>H3 여가활동 특성 → 삶의 질</b>				
H3-1	일과 여가의 충돌 → 삶의 질	-.066	-1.172	기각
H3-2	여가 참여 → 삶의 질	.013	.168	기각
H3-3	사회적 지지 → 삶의 질	.555	7.290***	채택

\*p<0.05, \*\*p<0.01, \*\*\*p<0.001

〈표 5〉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에 따른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가설	경로	$\Delta\chi^2$ (df=1)	표준화계수(t값)	
			고관여 집단	저관여 집단
H4	스트레스 → 삶의 질	3.486(1)	-.275(-3.966)	-.438(-4.299)

주:  $\chi^2$  (CMIN)=352.436, df=188, p<.001, CMIN/df=1.875, NFI=.942, NNFI=.964, CFI=.972, GFI=.937, AGFI=.909, RMSEA=.037

로계수의 값이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제약모델(constrained model)을 분석한다. 이후 이 두 모델의  $\chi^2$ 값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우종필, 2012).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는 <표 5>와 같다. 제약모델은  $\chi^2$ (CMIN)=387.294, df=198, p<.001, CMIN/df=1.956, NFI=.936, NNFI=.961, CFI=.968, GFI=.931, AGFI=.906, RMSEA=.038이며, 비제약모델은  $\chi^2$ (CMIN)=352.436, df=188, p<.001, CMIN/df=1.875, NFI=.942, NNFI=.964, CFI=.972, GFI=.937, AGFI=.909, RMSEA=.037로 비제약모델과 제약모델의  $\chi^2$ (df) 변화량이 3.84(p<.05) 보다는 다소 작지만  $\chi^2$ (df) 변화량이 3.486(1)로 유의도 p<.10 기준으로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4는 채택되었다. 농촌 치유관광 고관여집단과 저관여집단의 경로계수의 차이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고관여집단은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t=-3.966, p<.00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저관여집단의 경우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t=-4.299, p<.001로 더 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 치유관광에 대해 고관여집단보다 저관여집단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 치유관광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치유관광을 통해 일상회복을 경험할 확률이 높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 5. 결론 및 시사점

개인의 여가활동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과 사회적지지 등 여가활동 특성은 스트레스와 궁극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치유관광에 대한 관여도는 스트레스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촌 치유관광 경험자 658명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특성이 스트레스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가활동 특성 중 일과 여가의 충돌은 스트레스에,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손지영, 2017; 신규리, 박정열, & 손영미, 2018; Leung, & Lee, 2005)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일로 인한 시간부족과 신체적·심리적 소진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가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과 환경이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김송이, 2020; 김혜지, & 지정훈, 2019; 이철원, & 이민석, 2017; Leodoro et al., 2017)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회적으로 여가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지지와 격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유세란, 2019; 이광옥, 2010)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촌 치유관광 마케팅과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과 여가의 충돌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상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과 삶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개인과 사회의 인식변화와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치유관광 운영자들은 관광객들이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쉼과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위케이션 상품이나, 멀리 가지 않아도 잠시 머무르며 재충전이 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스트레스는 삶의 질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상회복을 통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 치유관광 운영자들은 관광객들이 학업이나 업무 등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일들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에서 심신을 이완하고 치유활동으로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여가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배려가 중요하며, 특히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 치유관광의 공익적 가치와 치유적 가치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식 확대, 사업모델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에 따라 스트레스와 삶의 질의 관계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관여집단이 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더 큰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 치유관광 운영자들은 농촌 치유관광을 통해 일상스

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다는 점을 잘 부각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촌 치유관광객의 여가활동 특성, 스트레스, 삶의 질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스트레스와 삶의 질 간의 관계에서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농촌 치유관광객들의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 조성, 농촌 치유관광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모델 육성 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민의 여가와 치유 공간으로서 농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가활동 특성을 중심으로 실증적 분석을 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농촌 치유관광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구명함으로써 관광객의 관여도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치유관광객을 세분화한 특성을 분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측면으로 치유관광객을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인 특성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 김영숙. (2002). 성인 소비자의 여가비지출과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5(2), 129-158.
- 김경희, & 민재한. (2021). 농촌 치유관광 참여자의 관여도 영향요인 분석. *농촌지도와 개발* 28(3), 127-136. doi:10.12653/jecd.2021.28.3.0127
- 김경희, & 이해영. (2019). 농촌 치유관광객의 서비스 품질이 관광객의 행동의도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26(4), 193-203. doi:10.12653/jecd.2019.26.4.0193
- 김경희, 황대용, & 이해영. (2021). 농촌 치유관광객 시장 세분화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28(1), 13-23. doi:10.12653/jecd.2021.28.1.0013
- 김송이. (2020).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삶의 질, 긍정심리자본에 관한 융합적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1(6), 423-431. doi:10.15207/JKCS.2020.11.6.423
- 김혜지, & 지정훈. (2019). 미용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시민행동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미용학회지* 15(3), 305-313. doi:10.15810/jic.2019.15.3.009
- 강희엽, 이철원, & 이민석. (2017). 노인들의 진지한 여가, 스트레스 관련 성장 및 행복감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1(1), 1-14.
- 농촌진흥청. (2020). *농촌의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치유관광 모델*. 안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류인평, 정총화, & 이정섭. (2018). 국제 이벤트 선택속성이 관광객의 관여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2018년 전주국제영화제 중심으로. *Tourism Research*, 43(3), 63-80.
-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 삶의 질 여론조사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 박정아, & 김병국. (2017). 농촌관광 체험의 치유효과 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1(2), 83-92.
- 박정익, & 최재우. (2018). 크루즈관광객의 선상이벤트 참가동기가 정서적관여도와 고객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22(5), 257-272. doi:10.18604/스개.2018.22.5.12
- 방신웅, 우효동, & 황선환. (2015). 과연 진지하고 전문화된 여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9(1), 1-15.
- 배병렬. (2014).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백림정, & 한진수. (2017). 힐링관광에서의 고객체험이 주관적 행복감, 심리적 행복감 및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체험경제이론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26(3), 1-17. doi:10.24992/KJHT.2017.04.26.03.01
- 손지영. (2017). 여가스포츠 참여 노인의 여가몰입과 삶의 질: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검증. *한국체육과학학회지*, 26(4), 331-344.
- 송영숙. (2013).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여가활동 특성에 따른 여가만족의 차이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7(1), 1-11.
- 심상신. (2006). 대학생들의 여가 유형별 여가참여 및 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규리, 박정열, & 손영미. (2018). 한국 직장인의 일-여가 갈등, 일·여가 촉진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성 연구. *여가학연구*, 16(4), 39-58.
- 우종필. (2012).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유세란. (2019). 농촌관광 체험요소, 체험가치지각, 체험평가의 구조적 관계: 관여도의 조절역할. *호텔관광연구*, 21(2), 29-44. doi:10.31667/jhts.2019.6.79.29
- 유영심. (2017). 지역정체성과 축제 만족도 및 충성도간의 영향관계: 강릉커피축제 방문객을 중심으로. *동북아*

- 관광연구, 13(1), 127-144.
23. 이충기. (2019). *관광조사 통계분석*. 서울: 대왕사.
  24. 이태희, 양제연, & 박연옥. (2014). 힐링체험욕구와 트랜스포메이션 행동의도 관계연구: 힐링관여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건지리학회지*, 24(2), 67-80. doi:10.35149/jakpg.2014.24.2.005
  25. 이해린. (2002). 컨벤션 참가자의 관여수준에 따른 만족도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오상훈, 임화순, & 고미영. (2006). *현대여가론*. 서울: 백산출판사.
  27. 여호근, & 김대환. (2005). 여성의 여가활동 참여, 여가만족, 주관적 웰빙에 관한 연구: 부산시민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68), 77-106.
  28. 이갑숙, & 임왕규. (2012). 노인의 여가활동과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1-16. doi:10.5392/JKCA.2012.12.10.291
  29. 이광욱. (2010). 이벤트관광의 방문동기가 몰입에 미치는 영향: 골프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4(4), 305-320.
  30. 이문숙, & Langsner, S. J. (2010). 직장인의 여가활동 참가가 우리성 및 직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1) 227-236.
  31. 임영삼, 김재현, & 이상덕. (2013). 노년기 스포츠 여가활동 참여와 스트레스 및 주관적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2(4), 37-50.
  32. 전재균. (2007).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팜스테이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추구편익의 시장세분화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9(3), 323-341.
  33. 최현욱, & 이민석. (2019). 여가동아리 참여 대학생의 여가만족, 스트레스 관련 성장 및 삶의 질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58(10), 203-215. doi:10.23949/kjpe.2019.01.58.1.15
  34. 한상철. (1998). *청소년학 개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35. Behar-Zusman, V., Chavez, J. V., & Gattamorta, K. (2020). Developing a measure of the impact of COVID-19 social distancing on household conflict and cohesion. *Family Process*, 59(3), 1045-1059. doi:10.1111/famp.12579
  36. Chang, L. H. (2006). Study on bank employees' job stress, leisure coping, and physical & mental health. *Asian Journal of Management and Humanity Science*, 1(1), 161-174.
  37. Dumazedier, J. (1962). *Toward a sociology of leisure*. New York: Free Press.
  38. Dustin, D. L., Bricker, K. S., Schwab, K. A. (2010). People and nature: Toward an ecological model of health promotion. *Leisure Sciences*, 32(1), 3-14. doi:10.1080/01490400903430772
  39.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40. Frank, S. H., & Zyzanski, S. J. (1988). Stress in the clinical setting: The brief encounter psychosocial instrument. *Journal of Family Practice*, 26(5), 533-539.
  41. Gursoy, D. (2001). *Development of a travelers' information search behavior model*. Blacksburg, VA: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42. Haines, D. J., Davis, L., Rancour, P., Robinson, M., Neel-Wilson, T., & Wagner, S. (2007). A pilot intervention to promote walking and wellness and to improve the health of college faculty and staff.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55(4), 219-225. doi:10.3200/JACH.55.4.219-225
  43. Kang, H. Y. (2017). The relationship among fun factor, leisure satisfaction and stress related growth for college student participating in Taekwondo. *The Korea Journal of Sports Science*, 26(5), 143-155.
  44. Kumar, A., Bhat, P. S., & Ryali, S. (2018). Study of quality of life among health workers and psychological factors influencing it. *Industrial Psychiatry Journal*, 27(1), 96-102. doi:10.4103/ipj.ipj\_41\_18
  45. Lee, C. J., Wu, C. S., & Lin, C. T. (2012). Leisure activity and coping with stress: Adolescents as case study. *Quality & Quantity*, 46(3), 979-991.
  46. Lee, C., & Lee, B. (2003). Characteristic differences between Kangwon Land casino visitors with respect to the level of involvement. *The Korea Tourism Studies*, 27(2), 133-154.
  47. Lee, M. S., Kang, H. Y., & Lee, C. W. (2017). The relationship among serious leisure, leisur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for older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6(1), 503-515. doi:10.23949/kjpe.2017.01.56.1.37
  48. Luo, Y., Lanlung, C., Kim, E., Tang, L. R., & Song, S. M. (2018). Towards quality of life: The effects of the wellness tourism experience.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35(4), 410-424. doi:10.1080/105484

- 08.2017.1358236
49. Leodoro, L., Denise M., Loanna, V., Olaide, B., Konstantinos, T., Kleisiaris, F., et al. (2018). A cross-country comparative study on stress and quality of life in nursing students. *Psychiatric Care*, 54(4), 469-476. doi:10.1111/ppc.12248
  50. Lin, Y. S., Huang, W. S., Yang, C. T., & Chiang, M. J. (2014). Work-leisure conflict and its associations with well-being: The roles of social support, leisure participation and job burnout. *Tourism Management*, 45, 244-252. doi:10.1016/j.tourman.2014.04.004
  51. Leung, L., & Lee, P. (2005). Multiple determinants of life quality: The roles of internet activities, use of new media, social support, and leisure activities. *Telematics and Informatics*, 22(3), 161-180. doi:10.1016/j.tele.2004.04.003
  52. Lin, J., Wong, J., & Ho, C. (2013). Promoting frontline employees' quality of life: Leisure benefit systems and work-to-leisure conflict. *Tourism Management*, 36, 178-187.
  53. Mannell, R. C., & Kleiber, D. A. (1997). *A social psychology of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Inc.
  54. Neulinger, J. (1974). *The psychology of leisure: Research approaches to the study of leisure*, Springfield, UK: Charles C. Thomas.
  55. Prebensen, N. K., Woo, E., Chen, J. S., & Uysal, M. (2013). Motivation and involvement as antecedents of the perceived value of the destination experience. *Journal of Travel Research*, 52(2), 253-264. doi:10.1177/0047287512461181
  56. Prayag, G., & Ryan, C. (2012). Antecedents of tourists' loyalty to Mauritius: The role and influence of destination image, place attachment, personal involvement, and satisfac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51(3), 342-356. doi:10.1177/0047287511410321
  57. Regheb, M. G., & Griffith, C. A. (1982). The contribution of leisure particip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to life satisfaction of older pers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4(4), 295-306.
  58. Rice, R. W., Frone, M. R., & McFarlin, D. B. (1992). Work-nonwork conflict and the perceived quality of lif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3(2), 155-168.
  59. Sirakaya, E., McLellan, R. W., & Uysal, M. (1996). Modeling vacation destination decisions: A behavioral approach. *Journal of Travel & Tourism Marketing*, 5(1-2), 57-75.
  60. Wiley, C., Shaw, S. M., & Havitz, M. E. (2000). Men's and women's involvement in sports: An examination of the gendered aspects of leisure involvement. *Leisure Sciences*, 22(1), 19-31. doi:10.1080/014904000272939
  61. Yang, J. Y., Paek, S., Kim, T., & Lee, T. H. (2015). Health tourism: Needs for healing experience and intentions for transformation in wellness resorts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27(8), 1881-1904. doi:10.1108/IJCHM-11-2013-0505
  62. Zeithaml, V. A., Parasuraman, A., Berry, L. L., & Berry, L. L. (1990). *Delivering quality service: Balancing customer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63. Zhao, L., & Rashid, H. (2010). The mediating role of work-leisure conflict on job stress and retention of it professionals. *Academy of Information and Management Sciences Journal*, 13(2), 25-40.

Received 13 September 2022; Revised 18 September 2022; Accepted 20 September 2022



Dr. Kyung-Hee Kim is a Researcher at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er research field is rural tourism.  
Addres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66, Non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55365, Republic of Korea  
E-mail: khkim08@korea.kr  
phone: 82-63-238-2630



Dr. Jae Han Min is a Post-doc Researcher at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outh Korea. His research field is rural healing tourism.  
Addres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vironment,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66, Nonsaengmyeong-ro, Iseo-myeon, Wanju-gun, Jeollabuk-do 55365, Republic of Korea  
E-mail: jaehan84@korea.kr  
phone: 82-63-238-2640